

# 이혼적용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검증

- 집단 마라톤식 과정으로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ducation Program for Post-divorce Adjustment

- Focused on the group marathon course -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아동·주거학과

강사 문현숙

교수 김득성

Dept. of Child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Moon, Hyun Sook

Professor : Kim, Deuk Sung

## 《 목 차 》

I. 서론

II.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III. 프로그램의 개발

IV.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post-divorce adjustment and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is program was consisted of eight sessions and applied to divorced parents. It was focused for the understanding of grief processes for adults, recovery by forgiveness, children's responses and coping strategies to divorce, open minded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enhancement of self-esteem to be healthy single parent.

Results of paired t-test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and the effectiveness remained until follow-up. In conclusion, this program was thought to be effective for improving self-esteem, divorce coping competency and minimizing of the depressions. Continual education is thought to be necessary for maintaining of the effectiveness to the divorced parents.

Corresponding Author: Hyun-Sook Moon, Department of Child and Hou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Changjeon-dong, Keumjeong-ku, Pusan, 609-735, Korea Tel : 82-51-510-2762 Fax: 82-51-513-7976 E-mail: hyunsookm@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 for post-divorce adjustment), 슬픔의 과정(process of grief), 자존감 향상(enhancing self-esteem), 이혼대처능력(divorce coping competency)

## I. 서론

지난 20년 동안 우리 나라의 이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2003)자료에 의하면, 2002년 한 해 이혼건수는 14만 5천 300건(쌍)으로 2001년에 비해 1만 300건(7.6%) 늘었으며, 하루 평균 398건이 이혼하였다. 조이혼율도 30건으로 10년 전인 1992년(12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했으며, 이는 통계청이 공식 발표를 내놓은 197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혼 부부의 동거기간을 보면, 5년 미만이 26.9%로 가장 높기는 하나 1992년 36.4%에서 꾸준히 감소한 반면, 20년 이상 장기동거부부의 경우 2002년 30.4%로 급증하여 3건의 이혼 중 1건이 장기동거부부의 이혼으로 나타나, 중·노년층의 황혼이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초래하는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다(Albrecht, 1980; Goode, 1956; Holmes & Rahe, 1967; Spanier & Thompson, 1984; Weiss, 1975; Blaisure & Geasler, 1996; Petersen & Steinman, 1994). 이혼 후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대단히 큰 고통이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심리적 상실도 엄청나다. Kitson과 Raschke(1981)는 이혼 후의 적응요인이 대부분 이혼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요인들임을 밝혔다. 즉, 성별, 연령, 자녀, 이혼제안자, 결혼기간과 같이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요인들보다는 경제적 형편,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사회적 지원망, 이혼 후 대처전략 등 변경이 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적응과정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혼 후 적응이 개인과 사회의 노력으로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이혼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이혼자들로 하여금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과 현실을 분명하

게 인식하게 하여 상실감 및 실패감으로부터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혼 후 생활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혼 후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그에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이혼 후 효율적인 적응전략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또한 이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Arbuthnot & Gordon, 1996; Braver, Salem, Pearson & DeLusé, 1996; Buehler, Betz, Ryan, Legg & Trotter, 1992; Geasler & Blaisure, 1995; Kramer & Washo, 1993)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법원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문현숙·김득성, 2000; 한경혜, 1993a, 1993b), 연구비용의 제한과 연구대상자 모집이 용이하지 못한 점 및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이혼적응을 돕는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김득성, 2002; 문현숙·김득성, 2002)이 이루어졌다. 김득성(2002)의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은 이혼 후 적응을 돕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연구이지만, 3시간 2회기로 구성되어 있어 이혼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문현숙·김득성(2002)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장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후속연구를 하였으나 실시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현숙·김득성(2002)에 의해 개발된 총 6회기의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을 이혼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혼자들의 적응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용서에 대한 실습과 부모자녀간 대화 기

술 습득을 각각 두 회기로 늘려서, 용서교육을 통한 상처회복과 의사소통 기법 훈련을 통해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8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장·단기로 나누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회기 수와 회기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구분하는 경향이이다. 미국의 경우 법원에 의해 위임된 프로그램(76%)의 대부분이 1회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단기 프로그램은 이혼 후 겪는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행동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훈련과 같은 기술 습득을 위해 장기(6-10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Braver, Salem, Pearson & DeLuse, 1996).

2002년 현재 우리 나라의 조이혼율은 OECD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2위이다(통계청, 2003). 이러한 현 시점에서 이혼자들의 문제는 이제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혼자들이 이혼 후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본 프로그램은 이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이혼 후 적응단계에 대한 이해, 이혼자들의 자존감 증진 및 이혼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 그리고 부모들에게 자신의 이혼으로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혼자와 그 가족의 적응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의 교육에 응용되어 이혼자들을 위한 국가 정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본 프로그램은 Burns와 WhiteMan의 슬픔의 단계 모델과 Bohannan의 이혼과정의 6단계 모델을 이론

적 토대로 하였으며, 미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국내의 이혼 적응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 삼았다.

### 1. 슬픔의 과정 및 이혼과정 6단계 모델

이혼은 관계의 상실을 의미하며, 결혼의 죽음과 같으므로 어떤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과정인 슬픔의 과정을 야기한다. K übler-Ross(1969)가 제시한 죽음의 과정은 부인·분노·협상·우울·수용으로 끝나는 반면, 이혼의 경우는 '용서'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슬픔의 과정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특히, 진정한 상처회복은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혼자들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Bohannan(1970)은 이혼과정을 6단계로 분류하였다. 이혼에 직면한 부부들은 이혼이 어떤 분명한 시작과 끝을 가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는 다른 과업을 수반하며, 각 단계의 경험 또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여 이혼과정의 복잡성을 설명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유대감과 의사소통을 철회하는 단계인 정서적 이혼(emotional divorce)과, 법적인 결정에 의해 결혼이 해체되는 법적 이혼(legal divorce), 돈과 재산을 분리해야 하는 과정인 경제적 이혼(economic divorce), 자녀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인 공동부모역할 이혼(coparental divorce), 가족, 친구 등의 사회관계망의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이혼(community divorce) 그리고 전 배우자로부터의 실질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정신적 이혼(psychic divorce)의 6단계 과정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슬픔의 과정과 이혼과정 6단계 모델은 미국내 대부분의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론적 근거로 유용하게 인용되고 있으며(Roeder-Esser, 1994 ; Geasler & Blaisure, 1998), 본 프로그램에서도 1, 2, 3, 4회기에 적용되어, 이혼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이 자

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혼자들도 같은 경험을 하는 정상적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이혼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 2. 국내 외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 현황

미국에서 이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1976년에 Kansas주에서 Johnson County Mental Health Center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약 40여 개의 프로

그램이 미국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문현숙·김득성, 2002, 참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2-3시간 정도의 1회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3시간씩 2회기로 한 주 건너 실시되는 세미나(Children of Separation and Divorce Center)와 주말을 이용한 집중적인 마라톤식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훈련을 포함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4-6회기의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다. 또한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혼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

〈표 1〉 국내 외 주요 이혼 적응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실시주체 및 개발자	대상	방법(회기)	주요 내용
GRASP	Johnson County Mental Health Center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소송 중인 부모	1회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공동후견, 부모와 자녀가 겪는 슬픔의 단계에 대한 이해
HCSAD	Franklin Domestic Relations Court	이혼부모	1회	부모의 이혼과 지속적인 갈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의 강화, 협력적인 공동 부모 역할, 자녀문제 예방을 위한 대처전략
RD	Woman's Place	이혼부모	6회	별거/이혼의 정서적인 영향, 이혼의 법적 측면, 재정관리, 편부모됨
ODP	Child and Family Services	이혼신청중인 부모	5회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반응과 대처전략, 공동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기법, 전 배우자와의 갈등관리 및 협상기법
BE	Josephin Stewart	이혼한 카톨릭 교인	1회	이혼 후 스트레스 극복, 독신생활의 적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
DSFPW	Chamber of Commerce	별거/이혼한 아버지	6회	이혼 후 아버지됨의 경험, 자녀부양비 지급,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기법
CFP	Children First Program Foundation	이혼부모	2회	부모자녀의 적응, 부모자녀관계의 질, 공동부모관계의 질, 이혼가족의 자원이용
CIM	Domestic Relations Court	이혼부모	1회	이혼 후 스트레스 관리, 자녀의 어려움/욕구에 대한 이해, 부모됨 기술
ST-DAEP	김득성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부모	2회	슬픔의 단계에 대한 이해, 자녀의 반응과 대처전략, 부모자녀간 효과적인 대화기술
LT-EPPA	문현숙·김득성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부모	6회	슬픔의 단계와 이혼과정, 용서, 자녀의 반응과 대처전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기법, 자존감 향상, 건강한 홀로서기.

GRASP : General Responsibilities As Separating Parents, HCSAD : Helping Children Succeed After Divorce

RD : Realities of Divorce, ODP : Orientation for Divorcing Parents

BE : Beginning Experience, DSFPW : Divorced/Separated Father's Parenting Workshop

CFP : Children First Program, CIM : Children-in-the-Middle,

ST-DAEP : Divorce Adjustment Education Program (Short-Term)

LT-EPPA : Education Program for Post-divorce Adjustment (Long-Term)

그럼도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김득성(2002)에 의해 단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었고, 후속연구로 문현숙·김득성(2002)의 이혼적응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의 모형이 개발되었다. 국내 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실시 주체 및 개발자와 대상, 방법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외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반응과 대처전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기법 및 이혼 후 스트레스 관리 등의 주요 내용을 5, 6, 7회기에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 III. 프로그램의 개발

#### 1. 프로그램의 목표

본 프로그램은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한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이혼한 부모들의 이혼 후의 적응과정을 돕고, 이혼자들과 자녀들이 이혼 후의 새로운 생활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자들에게 자신과 자녀가 이혼 후 겪는 슬픔의 단계와 이혼과정을 알게 한다.

둘째, 용서의 개념 및 중요성을 알고, 용서를 통해 진정한 상처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혼자들에게 부모의 이혼 후 연령에 따라 자녀들이 나타내는 반응과 대처전략을 알게 한다.

넷째, 이혼 후 손상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이혼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이혼 후 적응을 돕는다.

다섯째,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이혼자로서 새로운 정체감 형성과 재혼준비에 따른 마음가짐,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

찰할 수 있도록 한다.

#### 2.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국내 외 이혼적응에 관한 연구도 본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문현숙·김득성(2000)의 이혼 후의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에서는 이혼자들이 이혼 후에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 자녀문제, 사회의 편견과 사회관계망의 축소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자녀문제를 이혼에 대한 자녀의 연령별 반응을 설명하는 부분에 반영하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혼자들은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 혹은 결점이 많은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실패감은 이혼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Albrecht, 1980). 이혼자들의 자존감의 회복과 실패감의 극복은 이혼 후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혼자들에게 결혼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며, 새로운 정체감과 역할정립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형성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자존감의 향상을 돕는 내용을 5회기에 적용하였다.

이혼자들의 경우 이혼 후 정신적·실제적 도움을 제공받을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문현숙·김득성, 2000), 본 프로그램에서도 가족이나 친구, 자조모임 등 다양한 지지 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새로운 이성관계를 형성하거나 재혼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혼 후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한경혜, 1993b; Thabes, 1997)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성관계 및 재혼, 그리고 독신의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내용도 8회기에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프로그램은 이혼적응에 관한 국내 외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프로그램 구성에 도입

〈표 2〉 1회기 : 슬픔의 단계와 이혼과정 알기

목 표	1. 참가자들과의 라포를 형성한 후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2. 이혼 후 겪는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3. 이혼 후 성인의 슬픔의 단계와 이혼과정에 대해 안다.		
	내 용	시 간	
프로그램	도 입	*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 참가자들의 자기 소개의 시간	5분 10분
	강의내용	* 이혼 후 겪는 문제 알기 * 성인의 슬픔의 단계와 이혼과정 이해하기 * 위기의 두 가지 의미 알기	10분 30분 15분
	활동 및 실습	* 자신이 경험한 이혼 후 겪는 문제에 대해 발표하기 * 현재 자신은 슬픔의 단계 중 어떤 단계인지 생각해 보고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15분 10분
	종 결	* 요약 및 정리	5분
	준비물	이름표, 간단한 다과, 필기구, 배경음악, 교재	

〈표 3〉 2회기 : 용서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목 표	1. 용서의 개념 및 특성을 안다. 2. 용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3. 용서에 대한 나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을 나눈다.		
	내 용	시 간	
프로그램	도 입	* 지난 시간 내용 확인 및 이번 시간 교육내용 소개 *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원망이나 분노의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5분 10분
	강의내용	* 용서의 발달 단계 여섯 가지 스타일 알기 * 용서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 용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나누기	30분 20분
	활동 및 실습	* 용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고 서로 나누기 * 서약서 작성하기	20분 10분
	종 결	* 요약 및 정리	5분
	준비물	이름표, 간단한 다과, 필기구, 배경음악, 교재, 편지봉투, 편지지, 풀	

〈표 4〉 3회기 : 용서를 통한 상처회복하기

목 표	1.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상처회복에 대해 설명한다. 2. 용서의 편지 쓰기를 통해 화해의 경험을 한다. 3. 용서를 실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내 용	시 간	
프로그램	도 입	* 지난 시간 내용 확인 및 이번 시간 교육내용 소개 *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원망이나 분노의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5분 10분
	강의내용	* 용서의 실천방법 알기 * 용서를 통한 완전한 상처회복 경험하기	30분 20분
	활동 및 실습	* 화해의식-자신과 전 배우자에 대하여 용서의 편지 쓰기 * 용서의 편지 쓰기에 대한 소감 나누기	20분 10분
	종 결	* 요약 및 정리	5분
	준비물	이름표, 간단한 다과, 필기구, 배경음악, 교재, 편지봉투, 편지지, 풀	

<표 5> 4회기 : 자녀의 반응과 대처전략 알기

목 표		1. 부모의 이혼 후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인식한다. 2. 자녀의 슬픔의 단계를 이해한다. 3.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반응을 알고 대처전략을 습득한다.	
		내 용	시 간
프로그램	도 입	* 지난 시간 내용확인 및 이번 시간 교육내용 소개 * 이혼 후 자신이 경험한 자녀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5분 10분
	강의내용	* 부모 이혼 후 자녀가 겪는 어려움 알기 * 자녀의 슬픔의 단계 이해하고 예시를 통해 대처방법 알기 *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반응과 대처전략 알기	10분 30분 20분
	활동 및 실습	* 부모 이혼 후 자신의 자녀가 보인 반응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20분
	종 결	* 요약 및 정리	5분
	준비물	이름표, 간단한 다과, 필기구, 배경음악, 교재	

<표 6> 5회기 : 자존감 높이기

목 표		1.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는다. 2. 결혼의 실패가 인생전체의 실패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참된 사회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내 용	시 간
프로그램	도 입	* 지난 시간 내용 확인 및 이번 시간 교육내용 소개 * 이혼자로서 주위사람이나 사회로부터 받았던 편견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5분 10분
	강의내용	* 상실감 및 우울 극복방법 제시 * 자신을 돌보는 방법-주거환경, 외모, 건강, 취미 등에 대한 관심갖기 * 자존감 향상을 위한 전략 세우기	10분 20분 10분
	활동 및 실습	* 자신의 장점 5가지 이상 적어보기 * 혼잣말(Self-Talk)연습하기 * 상실감을 극복하는 전략-스트레스 해소	10분 20분 10분
	종 결	* 요약 및 정리	5분
	준비물	이름표, 간단한 다과, 필기구, 배경음악, 교재	

<표 7> 6회기 : 부모자녀간 마음열기-대화법

목 표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효과적인 말하기 기술-'나' 전달법, '지금-여기' 표현법을 습득한다. 3. 바람직한 말하기 기술의 응용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는데 적용한다.	
		내 용	시 간
프로그램	도 입	* 의사소통의 의미, 중요성 설명하기 * 자신이 경험한 부모자녀간 갈등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의견 나누기	5분 10분
	강의내용	* 효과적인 말하기 기술 I-message : 생각표현하기, 감정나누기 You-message * '지금-여기' 표현법	20분 20분
	활동 및 실습	* 말하기 기술 실습 및 훈련(말하기 실습 후 서로의 느낌과 경험나누기)	40분
	종 결	* 요약 및 정리 * 과제-말하기 기술 실습해오기	5분
	준비물	이름표, 간단한 다과, 필기구, 배경음악, 교재	

〈표 8〉 7회기 : 자녀마음 알기-대화법

목 표	내 용		시 간
1. 효과적인 듣기 기술을 습득한다. 2.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 감정 이입적 경청기술을 익힌다. 3. 자녀를 인정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프로그램	도 입	* 과제 점검 및 느낌 나누기 * 부모 자녀간에 잘 들어주지 않아서 생긴 갈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담 나누기	5분 10분
	강의내용	* 효과적인 듣기 기술 · 적극적 경청-주의 기울이기, 시선마주치기 · 반영적 경청-고개끄덕이기, 미소짓기, 간단한 느낌 표현하기 · 감정이입적 경청-경험 인정하기, 감정 공유하기	40분
	활동 및 실습	* 듣기 기술 실습 및 훈련(듣기 실습 후 서로의 느낌과 경험나누기)	40분
	종 결	* 요약 및 정리 * 과제-듣기 기술 실습해오기	5분
	준비물	이름표, 간단한 다과, 필기구, 배경음악, 교재	

〈표 9〉 8회기 : 건강한 홀로서기

목 표	내 용		시 간
1. 자신의 과거의 가족생활을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한다. 2. 홀로서기를 통해 얻는 이점을 안다. 3. 새로운 이성관계 및 재혼의 어려움과 재혼가족의 문제를 인식한다. 4. 가족, 친구, 사회기관과의 지지망을 형성한다.			
프로그램	도 입	* 지난 시간 내용확인 및 이번 시간 교육내용 소개 * 자신의 지난 가족생활을 돌아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5분 10분
	강의내용	* 건강한 홀로서기를 위해 해야 할 일 -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 - 사회지지망의 중요성 설명 : 다양한 지지망(가족, 친구, 사회기관)강조 site목록 제공 - 다양한 취업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 홀로서기를 통해 얻는 이점 알기 * 재혼가족의 문제와 새로운 이성관계 및 재혼의 어려움 알기 * 새로운 생활을 위한 대응전략 알기	20분 20분
	활동 및 실습	* 스트레스 관리법 실습하기	10분
	종 결	* 자신의 인생계획과 목적 세우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격려 * 사후검사지와 전체 프로그램 평가지 작성	15분 20분
	준비물	사후검사지, 종합 평가지, 간단한 다과, 필기구, 배경음악, 교재, worksheet	

하였으며, 총 8회기로 구성하였다.

- 1회기. 슬픔의 단계와 이혼과정 알기
- 2회기. 용서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 3회기. 용서를 통한 상처회복하기
- 4회기. 자녀의 반응과 대처전략 알기

- 5회기. 자존감 높이기
- 6회기. 부모자녀간 마음열기 I
- 7회기. 부모자녀간 마음열기 II
- 8회기. 건강한 홀로서기



#### IV.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 1. 프로그램 실시

본 프로그램은 이혼과정과 슬픔의 단계 이해, 용서를 통한 상처회복, 이혼자의 자존감 향상,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훈련, 그리고 건강한 홀로서기 등을 통해 이혼자들의 이혼 후 적응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할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부산지역 두 개 일간지에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총 36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틀간에 걸쳐 마라톤식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모두 참석 가능한 대상자 10명(남자 3, 여자 7)만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8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1명만 개인적인 사정으로(교회출석) 5회기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뿐 참가자 전원이 8회기의 전 과정에 참석하였다.

프로그램 시행장소는 부산YWCA산하 J복지관의 회의실이었으며, 2003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총 8회기 교육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교육은 강의와 매 회기 주제에 대한 토론 및 경험발표, 자료집(worksheet)을 통한 활동 및 실습, 실습경험에 대한 토론과 현재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격려했다. 한 회기당 시간은 100분이 소요되었다.

##### 2.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자는 총 10명으로 여성 7명, 남성 3명이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0>와 같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40.3세이며, 30대가 6명, 40대가 4명이다. 교육수준은 대졸 3명, 대학 중퇴 2명, 고졸 4명, 중졸 1명의 분포를 보였다. 이혼 형태를 보면 9명이 협의이혼 하였으며, 1명만이 재판이혼 중에 협의하여 이혼하였다. 이혼 후 기간은 1년 미만이 5명이었고, 그 중에는 이혼한 지 1개월,

<표 10>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명(%)
성별	남	3 (30.0)
	여	7 (70.0)
연령(세)		평균 40.3세 (범위: 31-49세)
교육수준	중졸	1 (10.0)
	고졸	4 (40.0)
	대졸 중퇴	2 (20.0)
	대졸	3 (30.0)
직업	기술직	2 (20.0)
	자영업	3 (30.0)
	전문직	2 (20.0)
	무직	3 (30.0)
이혼형태	재판이혼 중 협의	1 (10.0)
	협의이혼	9 (90.0)
이혼기간	0-6개월 미만	2 (2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 (10.0)
	1년 이상-2년 미만	2 (20.0)
	2년 이상-3년 미만	1 (10.0)
	5년 이상	4 (40.0)
종교	기독교	3 (30.0)
	천주교	1 (10.0)
	불교	3 (30.0)
	무교	3 (30.0)
자녀수	1명	4 (40.0)
	2명	6 (60.0)

2개월 된 경우도 각각 1명씩 있었고, 2년 미만이 3명, 5년 이상인 경우도 4명이었다. 이혼사유를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외도, 폭력으로 인한 경우와 부부불화 등이었고, 남자의 경우는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불화가 2명이었고, 아내의 외도로 인한 경우도 1명 있었다.

##### 3. 프로그램의 평가

###### 1) 측정도구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전에 사전검사와 교육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한 달 후 우편으로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도구는 사전검사와 사후·추후검사  
에서 자존감 척도와 이혼대처능력 척도, 우울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  
가자의 주관적 평가지가 포함되었다.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였으  
며, 총 10문항으로 응답범주는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존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95$ 이다.

이혼대처능력 척도는 Barry, Risa 및 Barbara(1994)  
가 Parent Attitude Survey에서 사용한 총 25문항 중  
에서 20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5  
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 후의 생활에 잘  
대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혼대처능력 척도의 내  
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76$ 로 나타났다.

우울은 Derogatis(1977)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으로 응답범주는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의 내적 일관  
성 신뢰도는  $\alpha=.95$ 이다.

2) 프로그램 효과검증

본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와  
교육실시 한 달 후 추후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  
해 사용된 통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와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pairs t-test  
이다. 통계처리는 SAS/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양적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사전검사 결과 이혼자들의 자존감 점  
수는 중간정도였다. 먼저 자존감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프  
로그램 실시 한 달 후에 실시한 추후검사에서도 교육  
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11).

이혼대처능력 검사에서는 사전과 사후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와 추후간  
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2). 이  
는 이혼대처능력은 인지적인 부분으로 집중적인 강  
의와 활동을 통해 크게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추후에도 프로그램 효과가 증진되는 것으로 보  
아 참가자들이 교육을 통해 인지한 부분이 실생활을  
통해서 이혼으로 인한 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러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됨으로  
써 대처능력이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울 점수도 사전과 사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한 달 후 추후검사에서도 그 효과가 지속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이는 교육 후에 이혼자  
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실제로 추후검사 때, 2  
명의 참가자가 직업을 가짐)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 교육을 통해 이혼자들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이  
혼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능력이 상승하였을 뿐 아  
니라, 부모자녀간 대화법 기술을 통해서 자녀와의

<표 11> 참가자들의 자존감 사전-사후-추후 검사 차이검증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추후검사 평균(표준편차)	t (사전-사후)	t (사후-추후)
자존감	38.70(9.08)	42.20(6.21)	42.60(5.97)	2.38*	1.81

\*p<.05

<표 12> 참가자들의 이혼 대처능력 사전-사후-추후검사 차이검증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추후검사 평균(표준편차)	t (사전-사후)	t (사후-추후)
이혼대처능력	61.90(10.40)	73.50(9.57)	74.90(8.39)	4.15**	2.26*

\*p<.05 \*\*p<.001

〈표 13〉 참가자들의 우울 사전-사후-추후검사 차이검증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추후검사 평균(표준편차)	t (사전-사후)	t (사후-추후)
우울	23.90(10.00)	17.70(5.77)	16.60(4.90)	-3.58**	-2.01

\*\*p&lt;.001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우울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참가자들은 자존감이 증진되고, 이혼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우울 수준이 줄어드는 등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 프로그램을 실시한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 3)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주관적 평가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주관적 평가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교육 종료 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교육내용의 개선점 및 제안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게 하여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이혼적용 교육 프로그램이 이혼 후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오히려 더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으나 자신의 생각이 기우였으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총괄적인 평가는 100점 만점에 87.5점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회기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1회기의 이혼에 대한 슬픔의 단계와 6-7회의 자녀와의 대화법이 가장 높았다. 한편 전체적인 교육의 총 시간에는 다소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참가자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법 훈련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더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주관적 평가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느라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는데, 우리 애들도 나와 같은 슬픔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자책감이 들고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아이들을 잘 챙기겠다.”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용서하기 힘들지만, 프로그램에서 용서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와 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고, 도움을 받았다. 전 남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법이 습관이 안되어 있어 어려웠다. 하지만, 노력해 보겠다. 대화법을 몸에 익히려면 정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혼한 지 오래되어서 솔직히 재혼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막연하게 재혼이 더 어렵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교육을 받고 나니, 자신감이 없어지는 듯 하다. 재혼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강의 위주였던 것 같은데, 성공적인 재혼사례 등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희망을 주는 내용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도움이 되었다. 다른 곳에서 말하기 힘든 것을 얘기할 수 있었다. 별칭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참 좋았다.”

“나는 방통대에서 봉사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는 내가 전부 노총각인줄 알고 있다. 그렇다고 이혼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인지 그 모임은 좋은데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다.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너무 편하다. 앞으로 재혼을 하더라도 나는 아이 없는 이혼한 사람이 더 좋을 것 같다.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이밖에도 1회기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매 주, 또

는 한 주에 두 번 정도씩 여러 번 실시했다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으며, 이틀간 마라톤식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시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를 둔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이혼부모들의 자기이해와 상처회복을 통한 자존감의 증진,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부모자녀관계를 개선시키며, 이혼 후의 생활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이혼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자존감과 이혼대처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추후에도 효과가 지속되었고 이혼대처능력은 추후에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추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가자들의 주관적 평가에서도 이혼 후의 생활에 매우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체로 만족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이혼자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익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이틀간 마라톤식으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의와 경험나누기를 통해 이루어져 프로그램 실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6명의 신청자 중에서 이틀동안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았고, 주말에도 직장에 나가야 하는 경우와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들이 제기되어서 앞으로는 매주 2-3시간씩 몇 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방법 등 더 많은 이혼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프로그램을 연중기획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이혼자들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0명의 소집단에 의한 한 번의 평가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주말이나 연휴를 이용하여 마라톤식 전달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와 주 1회 8회기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참가자들은 이혼 후에 건강하게 홀로서기를 한 사람이나 재혼에 성공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듣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교육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좋은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례를 섭외하여 그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거나, 그러한 사례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참가자들 중 이혼 후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상처회복과 건강한 홀로서기에 관심을 보인 반면에 이혼 후 기간이 길수록 재혼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자녀와의 대화시 주요 주제가 다르므로 교육대상을 이혼 후 기간이나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혼자들을 이혼기간이나 이혼 사유,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육대상을 모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에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이혼경험을 나눈 것이 오히려 반면교사의 역할이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프로그램 내용에서 재혼가족의 문제점 통찰 등 재혼의 어려움을 주로 강조했던 점이 지적되었는데, 추후에는 재혼의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의사소통교육은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려우므로(김경신, 1999),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법 영역에서

회기를 늘려 충분한 기술습득 시간을 갖는 방법, 또는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이혼자들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을 계기로 이혼자들의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이혼자들의 다양한 처지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개발되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법원과 연계되어 실시되거나, 종교기관,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활용되어 국가의 정책 마련과 궁극적으로 이혼자들의 적응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김경신(1999). 농촌지역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7(3), 127-142.
- 김득성(2002). 이혼적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단기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8.
- 문현숙, 김득성(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99-120.
- 문현숙, 김득성(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장기 교육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0(6), 197-211.
- 통계청(2003). *인구통계연보*.
- 한경혜(1993a). 이혼과 부부문제에의 이론적 고찰. *한국 가족학 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 한경혜(1993b). *한국 가족학 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하우
- Albrecht, S. L. (1980). Reactions and adjustment to divorce: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s of males and females. *Family Relations*, 29, 59-68.
- Arbuthnot, J., & Gordon, D. (1996). Does mandatory divorce education work : A six-month outcome evaluation.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4, 60-81.
- Barry, B., Frieman, R. G., & Barbara, M. (1994). Parenting seminars for divorcing parents. *Social Work*, 39(5), 607-610.
- Blaisure, K. R. & Geasler, M. J. (1996). Results of a survey of court-connected parent education programs in U.S. counties.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4(1), 120-131.
- Bohannon, P. (1970). The six station of divorce. In P. Bohannon (Ed.), *Divorce and after*. New York : Doubleday.
- Braver, S. L., Salem, P., Pearson, I., & DeLus, S. R. (1996). The content of divorce education programs : Results of a survey.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4(1), 41-59.
- Buehler, C., Betz, P., Ryne, C. M., Legg, B. H., & Trotter, B. B. (1992).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the orientation for divorcing parents : Implications for postdivorce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41, 154-162.
- Derogatis, L., Rickels, K. & Rock, A. (1977). The SCL-90 and the MMPI : A step in the validation of a new self-report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28, 280-283.
- Geasler, M. J. & Blaisure, K. R. (1995). Court-connected programs for divorcing parents in Michigan.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3, 484-494.
- Geasler, M. J. & Blaisure, K. R. (1998). A Review of divorce education program materials. *Family Relations*, 47, 167-175.
- Goode, W. J. (1956). *After divorce*. New York : Free Press.
- Holmes, T. S.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scale.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Kitson, G., & Raschke, H. (1981). Divorce research : What we do,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Divorce, 4*, 1-38.
- Kramer, L., & Washo, C. A. (1993). Evaluation of a court-mandated prevention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 The Children First program. *Family Relations, 42*, 179-186.
- Kübler-Ross. (1969).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 Petersen, V., & Steinman, S. B. (1994). Helping children succeed after divorce : A court-mandated educational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2(1)*, 27-39.
- Roeder-Esser, C. (1994). Families in transition-A divorce workshop-.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2(1)*, 40-4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esteem*. Princeton Univ. Press
- Spanier, G. B. & Thompson, L. (1984). *Parting: The aftermath of separation and divorce*. Beverly Hills: Sage.
- Thabes, V. A Survey analysis of women's long-term,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7(3)*, (1997), 163-175.
- Weiss, R. S. (1975). *Marital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2003년 7월 28일 접수, 2003년 11월 14일 채택)